

노대통령 탈당카드 왜 빼냈나

‘개헌 역풍’에 정면 돌파 승부수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임기 단축 가능성은 일축하며 개헌안 처리를 전제로 열린우리당 탈당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웠던 임기 단축 카드는 사실상 폐기됐지만 탈당 카드는 개헌 정국에 또 다른 ‘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노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는 우선 국정을 흔들고 있는 임기 단축 논란을 차단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는 개헌 문제 관찰을 위해 ‘탈당 카드’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우리당을 떠날 준비가 돼 있다는 명분과 함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우리 당에 남아서 당을 듣는 일이 없을 것인 믿음이 당은 적극 개헌에 임해달라는 ‘유인구’인 셈이

국민들에 개헌 진정성 보여주기

다.

특히, 임기 단축 카드가 폐기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 대통령이 탈당 카드를 범여권 대통합을 이루는 주춧돌로 삼고 반한나리당 연대를 구성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지 않으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통합의 파트너인 민주당이 개헌의 전제조건으로 노 대통령의 탈당과 거국내각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당장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이 사실상 탈당을 공식화한 것이고, 야권이 개헌안 처리라는 조건을 수용기에 앞서 탈당을 할 수도 있다”며 적극적인 해석을 내놓으며 야권의 개헌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헌 발의 시점을 전후해 탈당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경우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들과의 협의를 통해 진노 코드를 배제하고 중립적 인사들을 대폭 기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개헌 제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하는 거국내각 구성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탈당 시점은 대통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안을 밟힐 때의 시점이 가장 유력하고, 그때 아니면 개헌 논의가 가로막혔을 때 돌파구를 열기 위해 탈당 카드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개헌안이 표류할 경우 민주당 등 일부 야당들과의 협의를 통해 거국내각을 구

하야 일축…‘野 개헌동참’ 메시지

성, 정계개편의 물꼬를 틀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개헌의 전제 조건으로 탈당을 거론한 점에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개헌논의 불승’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개헌 조건부 탈당’ 발언을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황우여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이 탈당을 요구한 것도 아니라서 말할 게 없다”며 “한나라당과는 무관한 얘기”라고 말했다.

‘여권 대통합 주춧돌 삼기’ 분석도

민주당은 “실망스럽다”며 노 대통령의 선 탈당 및 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했고, 민주노동당은 개헌 논의와 대통령 탈당은 별개라는 입장을 보였다.

열린우리당 신당과 의원들도 노 대통령의 탈당 시사 발언에 그다지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야당들이 노 대통령의 탈당을 전제로 개헌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데다 탈당을 한다고 해도 통합신당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 빅3, ‘대선주자 관리설’ 촉각

박근혜 “정치 공작 우려”

이명박 “음모론 차단 고심”

손학규 “대비 필요 없어”

한나라당 대권주자 ‘빅3’는 11일 전날 박계동 의원이 공개한 여권별 문건에 ‘여야 대선주자 관리’라는 대목이 포함된 것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박 의원이 주장한 대로 이 문건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가 작성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문건에서 올해를 ‘개헌 국면’으로 규정한 부분이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으로 맞아떨어진 만큼 청와대가 실제 대선 정국에 개입할 가능성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출신으로는

반응을 보였지만 최근 여당과 일부 인터넷 매체의 네거티브 공세

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적잖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이 아닌 야당의 대선주자까지 ‘관리’하겠다는 대목은 현재 여론지지율로만 볼 때 당선 가능성성이 가장 높은 한나라당의 대선 주자들을 상대로 일종의 ‘정치공작’을 시도하려는 뜻이 아니라는 우려도 숨기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이 같은 우려에 공감하고 조만간 대책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 측은 문건의 내용과 작성자 등에 관심을 보이긴 했지만 설사 ‘관리’가 현실화된다 해도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없다면 자신감을 보였다.

광주YMCA가 11일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현 시기의 개헌논의는 정치적 이해로 면밀히는 안되며 시대상이나 국민정서의 변화로 볼 때 지속적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광주YMCA는 성명에서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집권 이후 평가장치로서 국정의 효율성, 책임성, 안정성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개헌의 필요성은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시기와 내용 등을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 된다”고 밝혔다.

/체화증기자 chae@kwangju.co.kr

기초의원 잇단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초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혜광)는 11일 나정숙(여·50) 광주 서구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제판부는 또 이날 박상길 남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지역 유권자들에게 핸드폰을 이용 수십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서구의회 강신만의원 사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서구의회 강신만 의원이 11일 사퇴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서구의회

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지만 의원이 되려는 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해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회창 “헌법이 만화책이냐”

“조기 대선 치를 가능성 크다”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는 11일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이 좌절될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조기야하’를 통해 차기 대선 여론몰이를 할 가능성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재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모든 사람과 반대하는 데 (개헌을) 막고 나가겠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면서 “정치 판을 뒤흔드는 효과도 있고, 야당이 반대해 통과가 안됐다고 하며 ‘나 못 하겠다’고 내던지면 조기선거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재는 이어 “여권 후보측에서 대통령이 못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하겠다면 지난 탄핵정국 때 봤지만 또 동정론과 여론몰이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헌법이 무슨 동네 만화 가게 만화책도 아니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한 장면만 지우자고 해서 지워질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대통령이 말하는 문제점은 국정운영의 미숙과 무경험에서 오는 것이지, (단임제라는) 제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교원임용고시의 모든 것!

본 학원 출신 2007학년도 공립 유치원교사 광주자역 17명 중 15명 합격(1차합격자 기준)

관점없는 공부는 낭비일 뿐입니다.

국내영고시학원 겨울방학특강

무료공개설명회 1:1전문상담 환영 http://www.naeyoung.com

처음시작에서 합리까지 원문·장급을 통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합니다. 국내영고시학원은 오직 임용고시면을 전문으로 강의합니다.

새단장 최적의 학습 환경구축

학습공간을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했습니다.

개인 사물함, 스타디룸, 정독서실,

개인PC룸, 최첨단 영상강의실 완비

단체 10명 이상 수강등록시 할인혜택

*※ 한강과 바다유(한국 청환경 접수증)

인터넷 동영상강의 에듀뷰넷

www.eduview.net

인터넷 강의 시 무료증정!

G 파워콤

하나로통신

메가파스

ADSL VDSL 웨트피아 네스포트

월 24,750원(VAT별도, 3년) 전화 설치무료, 전화 50% 할인

월 25,200원(모뎀·AT 별도, 3년)

전화 설치무료, 전화 50% 할인

인터넷 강의 시 무료증정!

인터넷 강의 시 무료증정!